

GSIC Issue Brief

발행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책연구센터(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) | 발행일 2023년 8월 31일

2023년
1호

통계로 보는 경기도민의 사회문제와 사회적경제 인식

요약

- ① [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]는 전국 · 서울 대비 다소 낮고, ‘문화/여가생활’과 ‘소득/재산’ 만족도 향상 필요
- ② [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]는 ‘건강’으로 36.4%가 선택
- ③ 경기도민은 [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]로 ‘일자리(28.9%)’와 ‘부동산/주택(24.0%)’, ‘빈부격차(17.2%)’를 선택하여 모두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인식. 일자리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선택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빈부격차와 부동산/주택 문제, 저출산/고령화 문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
- ④ [경기도민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이슈]는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인데, 30대부터 50대까지는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 이슈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반면, 20대는 ‘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’, 60대 이상은 ‘노인 빈곤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’을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이슈로 인식
- ⑤ 경기도민은 [사회적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지역문제]로 ‘소득 및 주거 불안(29.2%)’과 ‘노동 불안정(23.2%)’, ‘삶의 질 저하(12.5%)’의 순으로 인식하였고, ‘환경오염과 기후변화(11.0%)’, ‘사회통합 저해(6.6%)’ 등은 전국 및 서울시민보다 선택 비중이 높은 편

시사점

- ❖ 경기도민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는 ‘건강’이지만, 실질적으로 삶에 어려움을 주거나 우선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는 ‘일자리’와 ‘주거부담/주택’ 등 경제적 요인
- ❖ 결국 사회적경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 ‘소득 및 주거불안정’과 ‘노동 불안정’으로 귀결
 - ↳ 단, 경기도는 ‘환경오염/기후변화’, ‘안전위협’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대 수준이 높은 편임을 감안 필요
- ❖ 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 위한 사회정책 추진 시, **성별 · 연령별 · 거주지역별 욕구와 인식 차이 고려 필요**
 - ↳ 여성은 환경오염/기후 등 생활이슈에 민감, 20대는 일자리/정서불안, 60대 이상은 노후빈곤 문제에 관심
 - ↳ 따라서 경기도 거주권역별 · 연령별 · 성별 도민의 지역문제 인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/분석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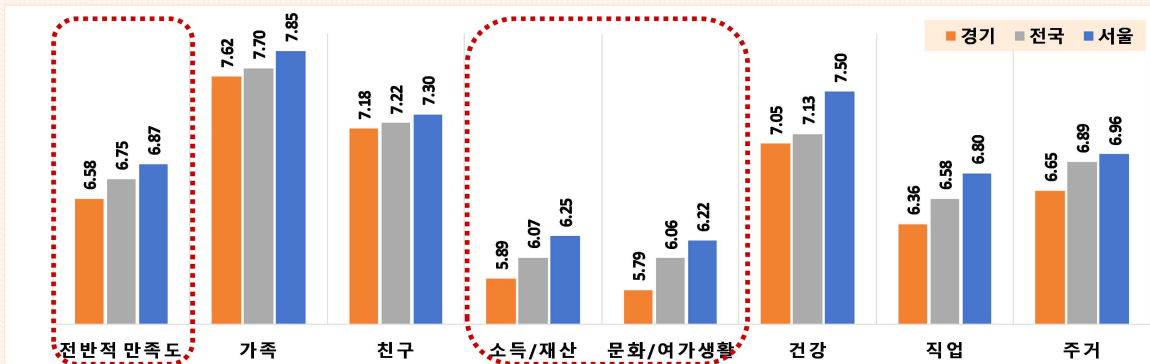
1 | 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는? 1)

■ 경기도민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(6.58점)는 전국(6.75점)과 서울(6.87점)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

- 경기도민은 가족(7.62점), 친구(7.18점) 등 대인관계 만족도와 건강(7.05점)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, 문화/여가생활(5.79점)과 소득(5.89점), 직업(6.36점)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
- 경기도민은 전반적 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전국과 서울시에 비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임
- 특히, 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만족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문화/여가생활(0.27점)과 주거 만족도(0.25점)임

[그림1-1] 삶의 만족도: 경기 vs. 전국 vs. 서울

(단위: 점)



주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를 적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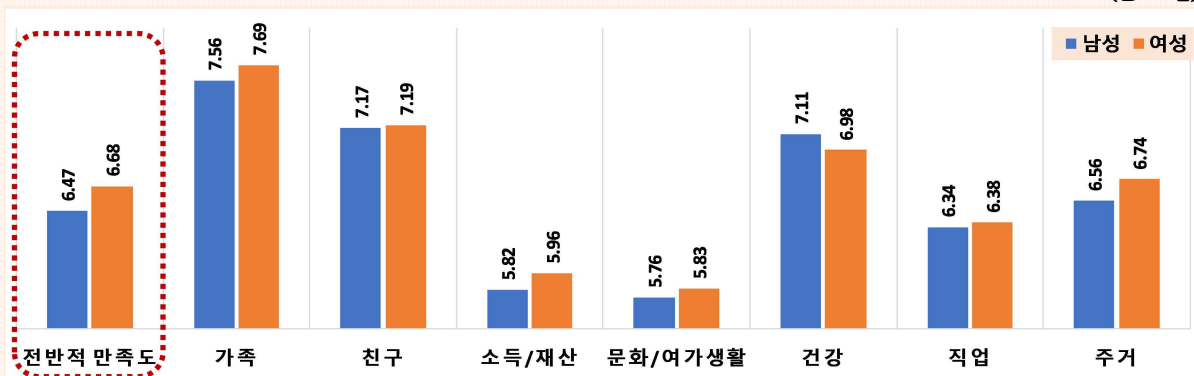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● 건강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다소 높은 수준

- 성별과 무관하게 경기도민은 가족 만족도가 가장 높는데 여성의 만족도(7.69점)가 남성(7.56점)보다 높음
-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서의 성별 차이(0.21점)가 다른 세부 영역별 만족도 차이보다 크고, 다음으로 주거 만족도에서의 성별 차이(0.18점)가 큰 것을 볼 수 있음
- 건강은 유일하게 남성 만족도(7.11점)가 여성(6.98점) 보다 높은 영역임

[그림1-2] 경기도민의 성별 삶의 만족도

(단위: 점)



주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를 적용함.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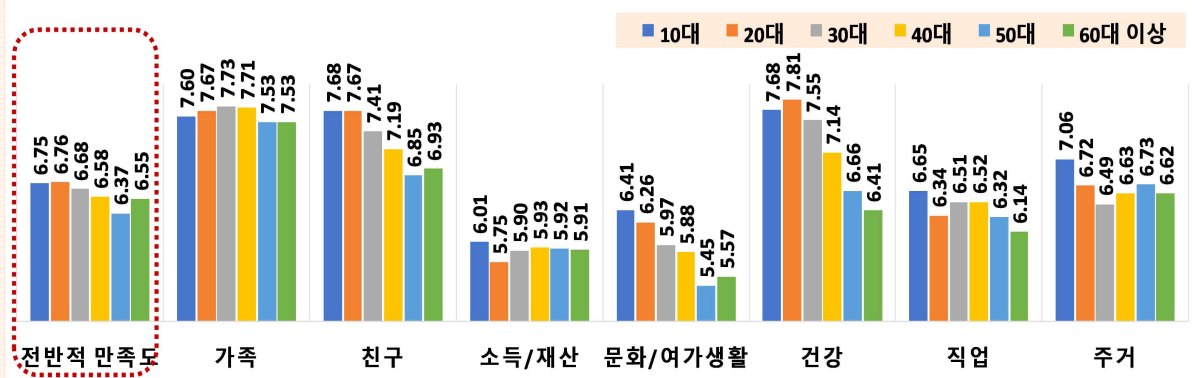
1)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.7.13.~2022.8.24.까지 전국민 5,100명(경기도민 1,220명)을 대상으로 수행한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음.

●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50대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다가 60대 이상에서 높아지는 추세

- 50대는 전반적 만족도(6.37점) 포함 가족(7.53점), 친구(6.85점), 문화/여가생활(5.45점) 만족도 등이 가장 낮은 삶의 시간적 여유가 가장 부족한 연령대
- 반면, 20대는 소득/재산에 대한 만족도(5.75점)가 가장 낮고, 60대 이상은 직업 만족도(6.14점)가 가장 낮았음.

[그림1-3] 경기도민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

(단위: 점)



주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를 적용함.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2 | 경기도민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는? 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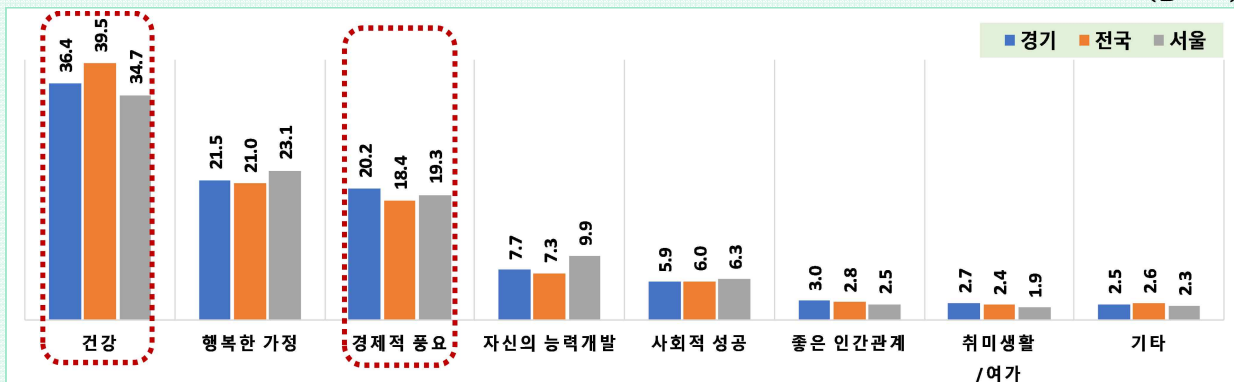
■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'건강'으로 경기도민의 36.4%가 선택

● “건강”은 경기도민뿐 아니라 전국민(39.5%)과 서울시민(34.7%)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

- 중요한 삶의 가치는 권역 구분과 무관하게 ‘건강’ → ‘행복한 가정’ → ‘경제적 풍요’ → ‘자신의 능력개발’ 순임
- 경기도민은 전국민에 비해 ‘건강’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선택한 비중은 다소 적고, ‘경제적 풍요’를 선택한 비중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

[그림2-1]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: 경기 vs. 전국 vs. 서울

(단위: %)



주1) 기타에는 정신적 성숙, 외모, 남성/여성과의 사랑, 지식/학식, 기타 항목이 포함됨.

주2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 적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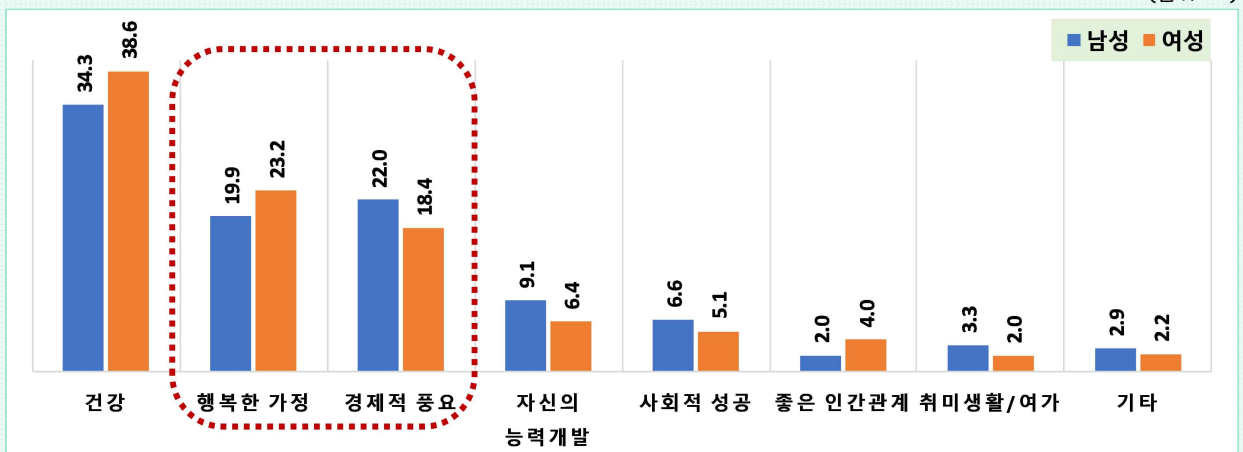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2)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.7.13.~2022.8.24.까지 전국민 5,100명(경기도민 1,220명)을 대상으로 수행한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음.

● 경기도 남성은 ‘경제적 풍요’ ‘능력개발’ ‘사회적 성공’, 여성은 ‘건강’ ‘행복한 가정’ ‘인간관계’ 중시

- 성별과 무관하게 “건강”이 가장 중요한 가치(남성 34.3%, 여성 38.6%)이지만, 다음으로 남성은 경제적 풍요(22.0%)와 행복한 가정(19.9%)의 순이고, 여성은 행복한 가정(23.2%)을 경제적 풍요(18.4%) 보다 중시

[그림2-2] 경기도민의 성별 삶의 중요 가치 인식



주1) 기타에는 정신적 성숙, 외모, 남성/여성과의 사랑, 지식/학식, 기타 항목이 포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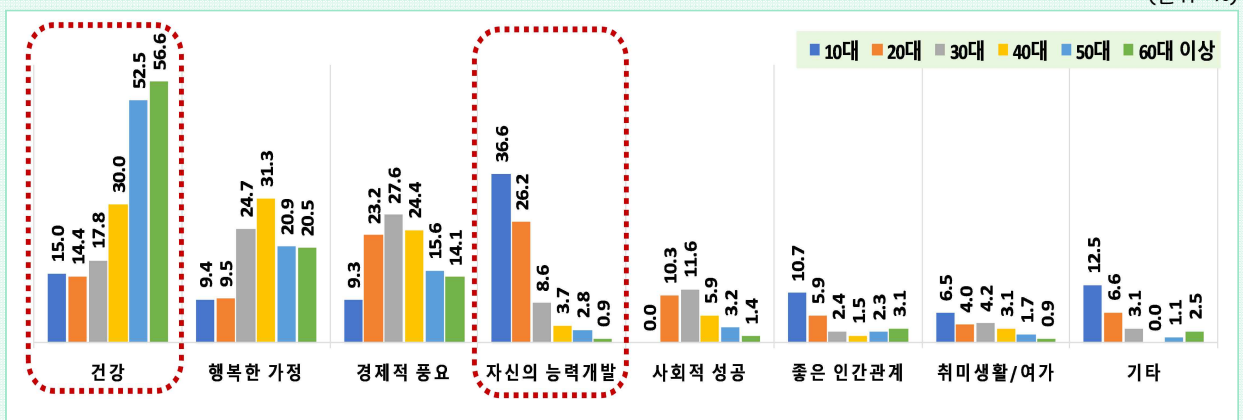
주2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 적용함.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● 삶의 중요 가치는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어, 10~20대는 ‘자신의 능력개발’, 30대는 ‘경제적 풍요’, 40대는 ‘행복한 가정’, 50~60대는 ‘건강’을 최우선으로 선택

- 10대는 ‘자신의 능력개발’을 36.6%, ‘좋은 인간관계’를 10.7%가 선택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
- 20대는 ‘자신의 능력개발(26.2%)’과 ‘경제적 풍요(23.2%)’가 유사한 비중으로 많았고, 30대는 ‘경제적 풍요(27.6%)’와 ‘행복한 가정(24.7%)’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, 40대는 ‘행복한 가정(31.3%)’과 함께 ‘건강(30.0%)’과 ‘경제적 풍요(24.4%)’를 합친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85%를 상회함
- 반면, 50대(52.5%)와 60대(56.6%)는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‘건강’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식하였음

[그림2-3] 경기도민의 연령별 삶의 중요 가치 인식



주1) 기타에는 정신적 성숙, 외모, 남성/여성과의 사랑, 지식/학식, 기타 항목이 포함됨.

주2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를 적용함.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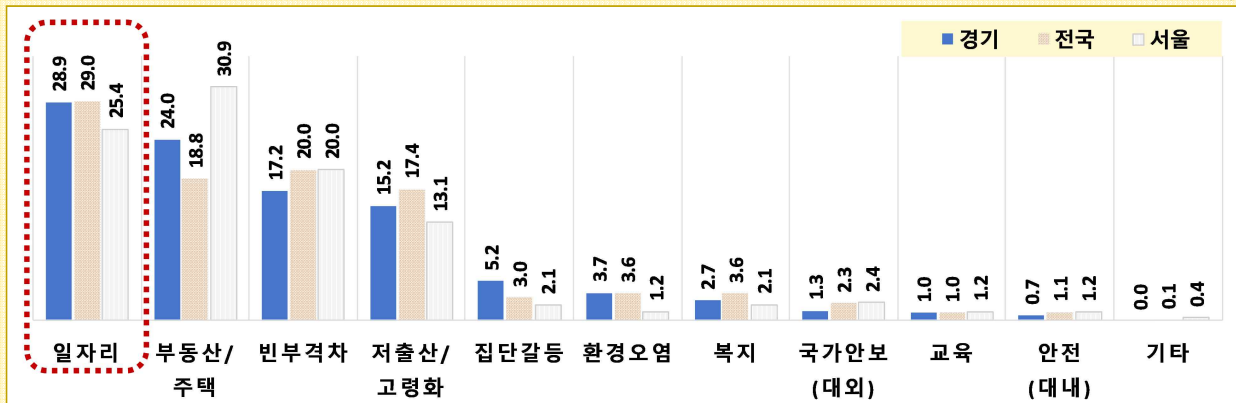
3 |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? 3)

■ 경기도민은 전국민과 동일하게 ‘일자리’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

- 경기도민은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일자리(28.9%)와 부동산/주택(24.0%), 빈부격차(17.2%) 선택
 - 전국민도 일자리(29.0%)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, 다음으로는 빈부격차(20.0%)를 부동산/주택(18.8%) 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고, 서울시민은 일자리(25.4%)보다 부동산/주택(30.9%)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

[그림3-1] 최우선 사회문제 인식(1순위): 경기 vs. 전국 vs. 서울

(단위: %)



주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를 적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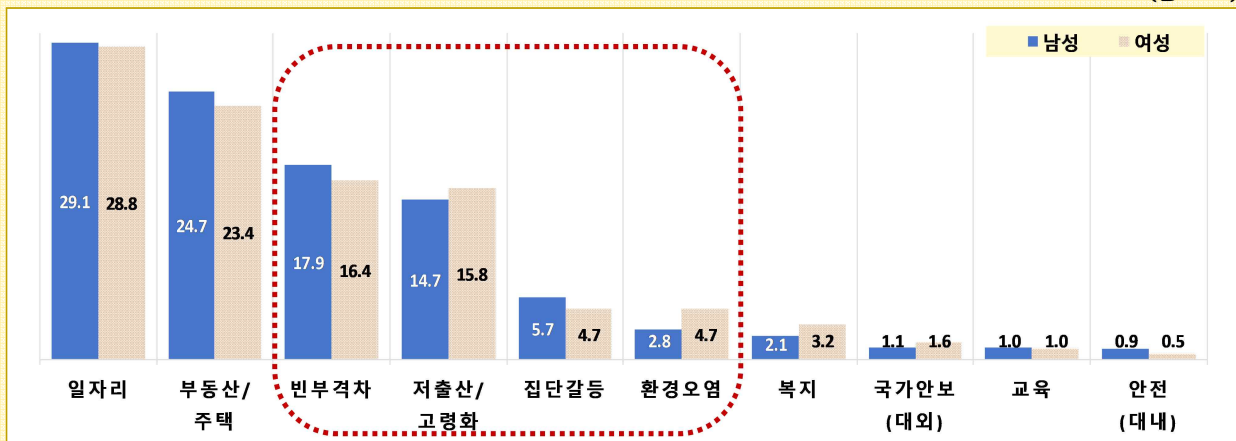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● 경기도민은 성별과 무관하게 ‘일자리’, ‘부동산/주택’, ‘빈부격차’, ‘저출산/고령화’ 순으로 사회문제 인식

- 경기도 남성은 ‘일자리’, ‘부동산/주택’, ‘빈부격차’, ‘집단갈등’, 여성은 ‘저출산/고령화’, ‘환경오염’, ‘복지’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

[그림3-2] 경기도민의 성별 최우선 사회문제 인식(1순위)

(단위: %)



주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를 적용함.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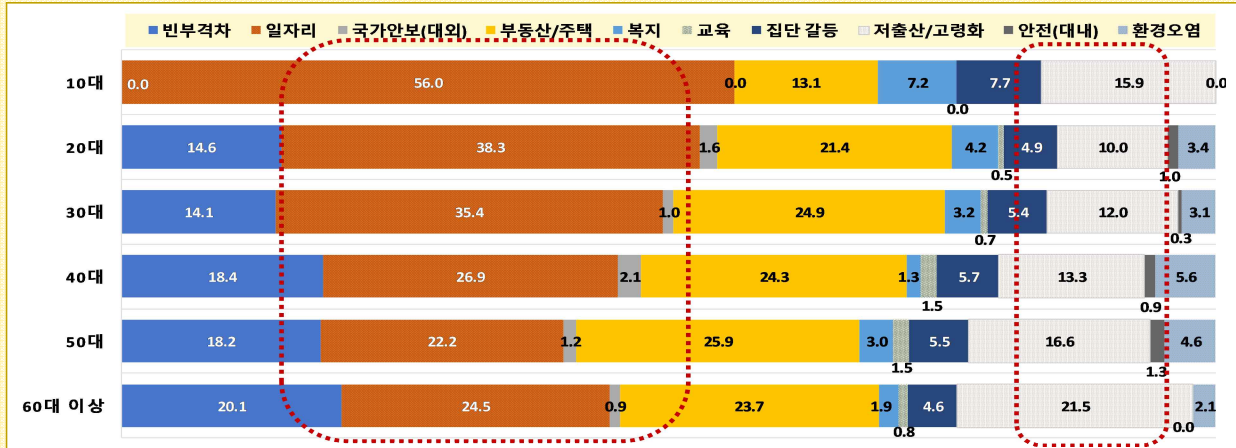
3)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.7.13.~2022.8.24.까지 전국민 5,100명(경기도민 1,220명)을 대상으로 수행한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음.

●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우선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는 연령별로 큰 차이

- 경기도 10대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'일자리(56.0%)'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꼽았는데, 연령이 많아질수록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
- 반면, '빈부격차'와 '부동산/주택' 문제, '저출산/고령화' 문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음

[그림3-3] 경기도민의 연령별 최우선 사회문제 인식(1순위)

(단위: %)



주) 모집단 가중치(가구원 단위)를 적용함.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4 | 경기도민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이슈는? 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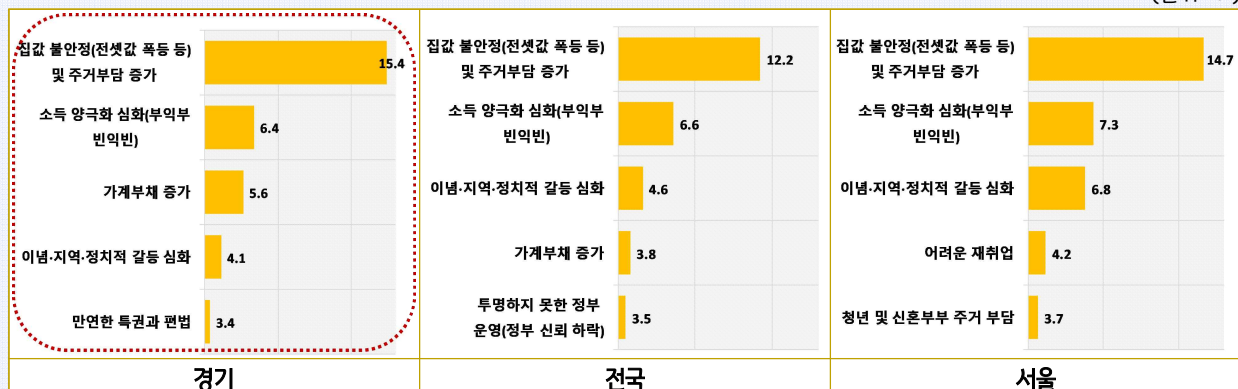
■ 경기도민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사회이슈는 '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'

● 경기도민의 15.4%가 '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'를 삶에 어려움을 주는 1순위 사회이슈로 선택

- 전국민과 서울시민도 각각 12.2%와 14.7%가 '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'를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이슈 1순위로 선택하였고, 그 다음으로는 '소득 양극화 심화(부익부 빈익빈)'를 1순위로 꼽은 비중이 많음(경기 6.4%, 전국 6.6%, 서울 7.3%)
- 경기도민의 1순위 응답 비중의 3번째는 전국 및 서울과 달리 '가계부채 증가(5.6%)'이고, '만연한 특권과 편법(3.4%)'은 전국 및 서울시민의 상위응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, '공정'이 경기도민에게 중요 이슈로 확인됨

[그림4-1]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 인식(1순위): 경기 vs. 전국 vs. 서울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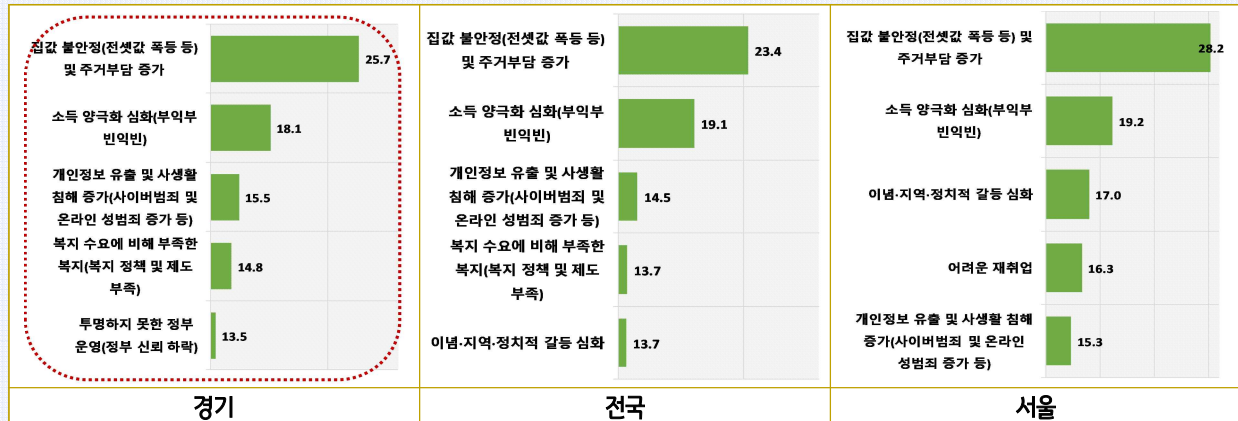
자료: 사회적가치연구원(2022). 「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」 원자료 재분석.

4)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2022.5.2.~2022.5.7.까지 전국민 1,000명(경기도민 266명)을 대상으로 수행한 「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」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음.

- 1순위부터 10순위 응답을 10점부터 1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한 결과, 1번째와 2번째 사회이슈는 경기도, 전국, 서울 모두 1순위 응답 결과와 동일한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와 ‘소득 양극화 심화’
- 그러나 삶에 어려움을 주는 3번째와 4번째 사회이슈는 경기도와 전국이 동일하게 ‘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’와 ‘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’로 나타났음.
- 또한, 경기도민 응답에 대한 가중치 분석 결과, 5번째 사회이슈는 전국과 서울시 응답의 상위 5개 순위에 없는 ‘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’으로 나타나, 경기도민은 ‘공정’과 함께 ‘신뢰’도 중요 이슈인 것을 볼 수 있음.

[그림4-2]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 인식(가중치): 경기 vs. 전국 vs. 서울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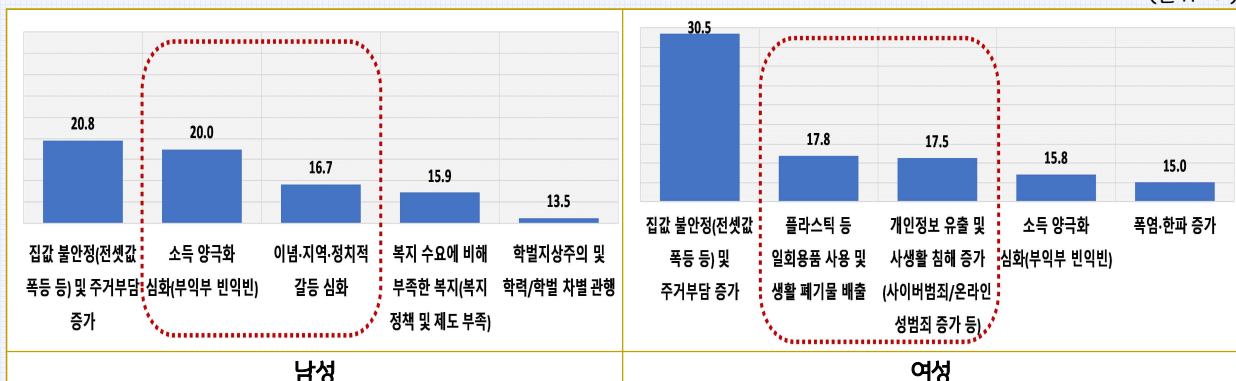
자료: 사회적가치연구원(2022). 「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」. 원자료 재분석.

- 경기도민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사회이슈는 성별과 무관하게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

- 다만,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가 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성(20.8%)과 여성(30.5%)은 약 10%p 차이로 여성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
- 또한,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 다음으로 삶에 어려움을 주는 2번째 사회이슈의 경우, 남성은 ‘소득 양극화 심화(20.0%)’이고 여성은 ‘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(17.8%)’로 차이가 있음

[그림4-3] 경기도민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 인식(가중치): 성별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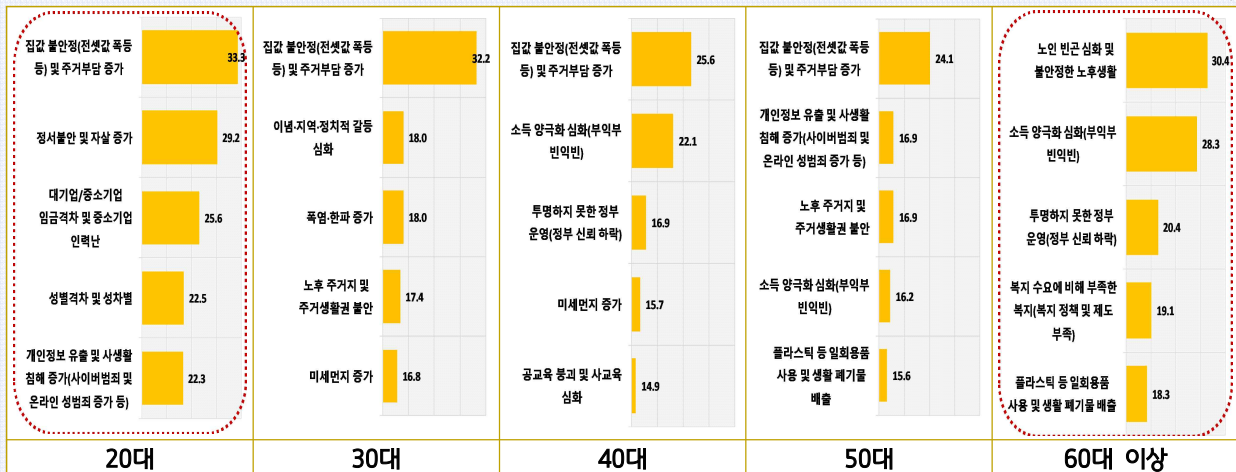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사회적가치연구원(2022). 「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」. 원자료 재분석.

- 경기도민 중 20대부터 50대까지는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가 가장 큰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지만 60대 이상에서는 ‘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’이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사회이슈
- 20대는 상위 5개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이들 사회이슈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, 30대와 50대는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 이슈에 특히 가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
- 40대는 ‘집값 불안정 및 주거부담 증가’와 ‘소득 양극화 심화’에 집중되어 있고, 60대 이상은 ‘노인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’과 ‘소득 양극화 심화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
- 특히, 20대는 다른 연령대의 상위 이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‘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(29.2%)’, ‘성별 격차 및 성차별(22.5%)’ 등이 상위 5개 사회이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

[그림4-4] 경기도민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 이슈 인식(가중치): 연령별

(단위: %)



자료: 사회적가치연구원(2022). 「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」. 원자료 재분석.

5 |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는? 5)

■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는 ‘소득 및 주거 불안’

- 경기도민은 ‘소득 및 주거불안(29.2%)’, ‘노동불안정(23.2%)’, ‘삶의 질 저하(12.5%)’의 순으로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 인식
- 전국민도 경기도민과 동일하게 ‘소득 및 주거불안(30.3%)’, ‘노동불안정(23.9%)’, ‘삶의 질 저하(13.4%)’의 순으로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를 꼽았으나, 경기도민에 비해 상위 3개 문제를 선택한 비중이 다소 많음
- 서울시민도 경기도 및 전국과 동일한 순으로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를 꼽았으나, 전국·경기도에 비해 ‘노동불안정(18.2%)’의 선택 비중은 적고 ‘삶의 질 저하(17.2%)’ 선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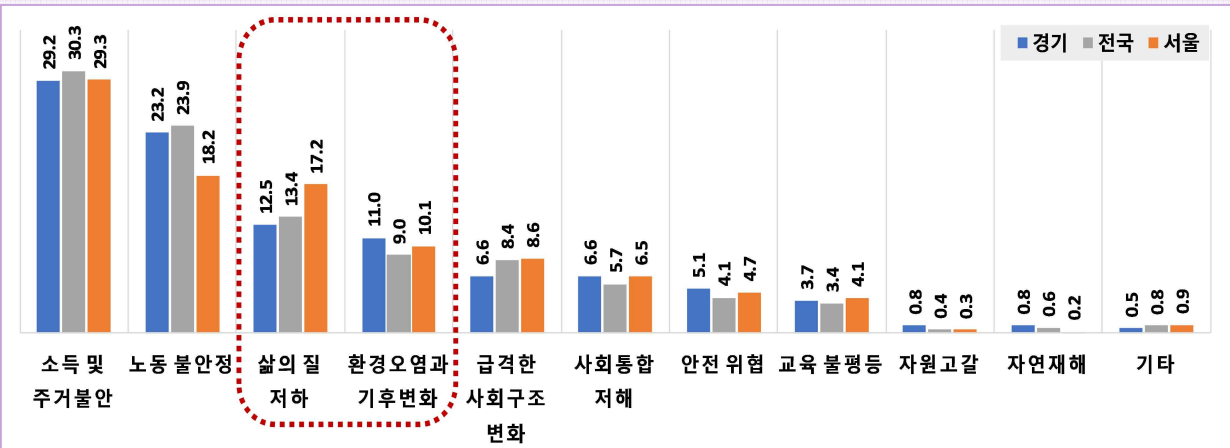
5)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0.10.5.~2020.11.13.까지 전국민 31,519명(경기도민 4,500명)을 대상으로 수행한 「202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공동조사」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음. 이 중 본고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(전국민 7,146명, 경기도민 945명)만을 대상으로 한 문항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음.

● 경기도민은 ‘환경오염과 기후변화’, ‘사회통합 저해’, ‘안전위협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중 차지

- 경기도민이 응답한 ‘환경오염과 기후변화(11.0%)’, ‘사회통합 저해(6.6%)’, ‘안전위협(5.1%)’은 전국 및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는 항목임

[그림5-1]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 인식: 경기 vs. 전국 vs. 서울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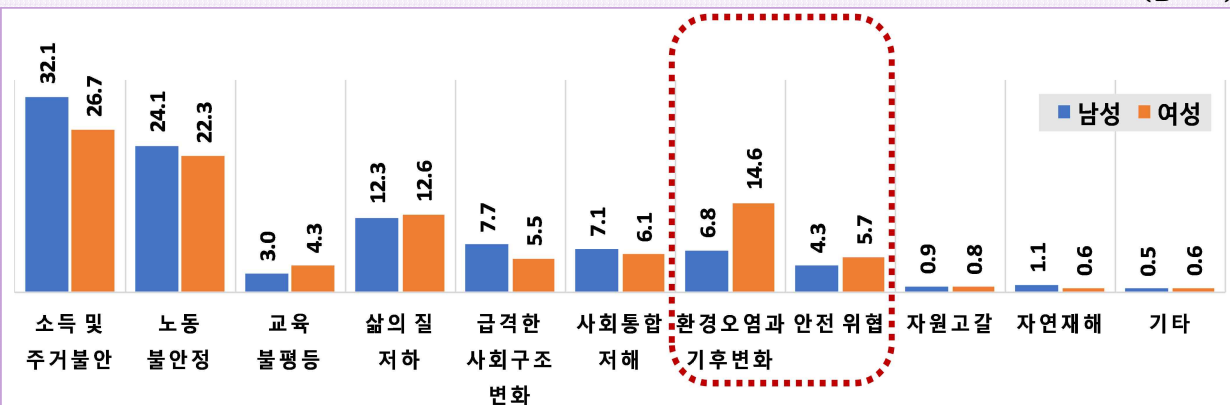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2021). 「202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공통조사」 원자료 재분석.

● 성별과 무관하게 사회적경제의 우선 해결 지역문제로 ‘소득 및 주거 불안’, ‘노동 불안정’, ‘삶의 질 저하’ 인식

- 다만, 성별로 응답 비중에서의 차이가 있는데, 남성은 ‘소득 및 주거불안(32.1%)’, ‘노동 불안정(24.1%)’, ‘급격한 사회구조 변화(7.7%)’, ‘사회통합 저해(7.1%)’ 문제를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음
- 반면, 여성은 ‘환경오염과 기후변화(14.6%)’에서 특히 큰 차이로 남성(6.8%)보다 많았고, 이 외에도 ‘삶의 질 저하(12.6%)’, ‘안전 위협(5.7%)’, ‘교육 불평등(4.3%)’에서 남성보다 응답 비중이 높았음

[그림5-2]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: 성별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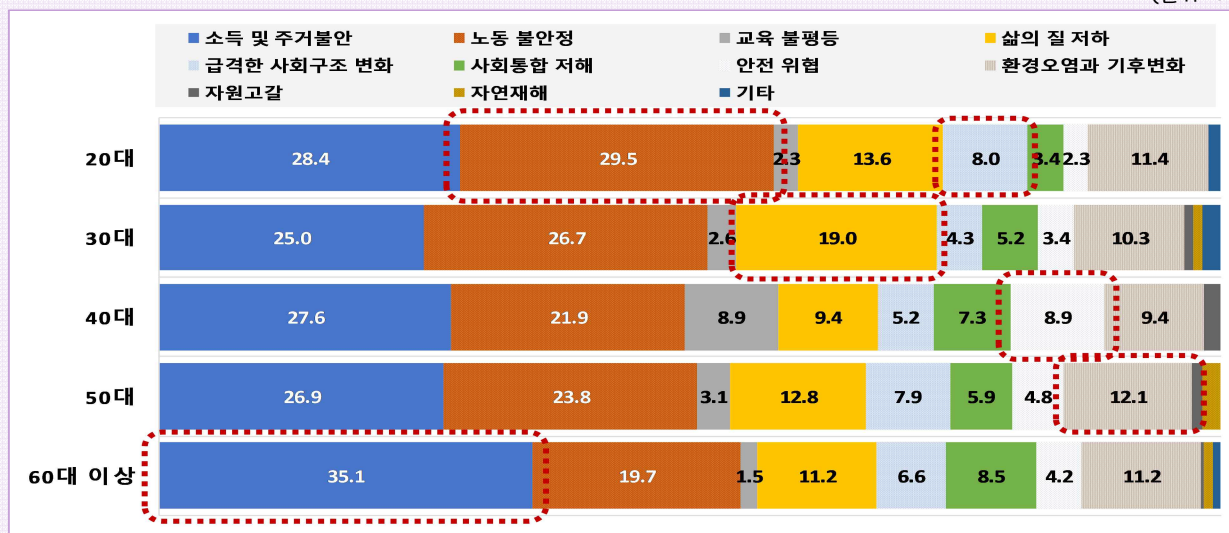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2021). 「2020년 지역자원조사(지역주민)」 원자료 재분석.

● 경기도민은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에 대하여 연령별로 다소 차이 존재

- 20대는 전 연령층을 통틀어 ‘노동 불안정(29.5%)’과 ‘급격한 사회구조 변화(8.0%)’를 꼽은 비중이 가장 많고, 30대는 유독 ‘삶의 질 저하(19.0%)’를 선택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
- 40대는 ‘안전위협(8.9%)’을 사회적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로 인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, 50대는 ‘환경오염과 기후변화(12.1%)’와 ‘급격한 사회구조 변화(7.9%)’의 응답 비중이 많았음
-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은 ‘소득 및 주거불안(35.1%)’을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로 꼽은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차이로 많았고, ‘사회통합 저해(8.5%)’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

[그림5-3]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사회적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: 연령별

(단위: %)



자료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2021). 「2020년 지역자원조사(지역주민)」 원자료 재분석.

[참고문헌]

문화체육관광부(2022). 「2022 한국인의 의식 · 가치관 조사」 원자료.

사회적가치연구원(2022). 「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」 원자료.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2021). 「202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공통조사(지역주민)」 원자료.